

서양인이 보는 '동양철학의 신비'

「老子와 道敎」 「주역연구」 잇달아 출간... 새로운 관점 보여줘

“지금 영어문화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동양학 연구는 그 질과 양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질 않는다.”

“이 상태로 나가면 우리는 동양학마저 서양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위 구절은 한때 인문과학도서 베스트셀러의 수위를 달렸던 金容沃씨의 「東洋學 어떻게 할 것인가」(통나무)에서 뽑아본 것이다.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거부감을 일으키게 만들만큼 직선적인 이 단언은 낙후된 우리 학계의 동양학 수준과 일반인들의 미비된 인식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우리는 오랜 인연을 내세워 공맹자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주장하기 앞서, 근세 이후 착실히 성과를 축적해온 서양학자의 동양학을 겸허한 자세로 ‘배워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서양인들이 쓴 이 방면의 저술의 보다 활발한 번역 소개가 요청되는 물론이다. 다행히 요즘 들어 몇몇 희망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금세기 과학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는 조셉 니담의 「중국의 과학과 문명」이 을유문화사에서 출판되었으며, 최근엔 홈스 웰치의 「老子와 道敎」(윤찬원 옮김/서광사)와 슈츠스키의 「주역연구」(오진탁 옮김/한겨레)가 나와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노자 사상과 도교 발전사 평이하게 소개

「노자와 도교」의 원제는 「Taoism: The Parting of the Way」로 초판은 1957년에 나왔다. 저자인 홈스 웰치는 하버드대학교 부설 동아시아연구소와 세계종교연구소 회원으로

서, 이 책은 독창적 연구서라기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비하고 난해하게만 여겨졌던 노자의 사상과 도교의 발전사를 평이하게 소개한 저서이다.

크게 4부로 구성된 이 책의 제 1·2부는 「道德經」에 나타난 노자의 사상을 해명한 것이고, 제3부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온 도교의 역사를 중요 국면을 조명하는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제4부는 노자 사상의 현대적 적용 내지 서구에서의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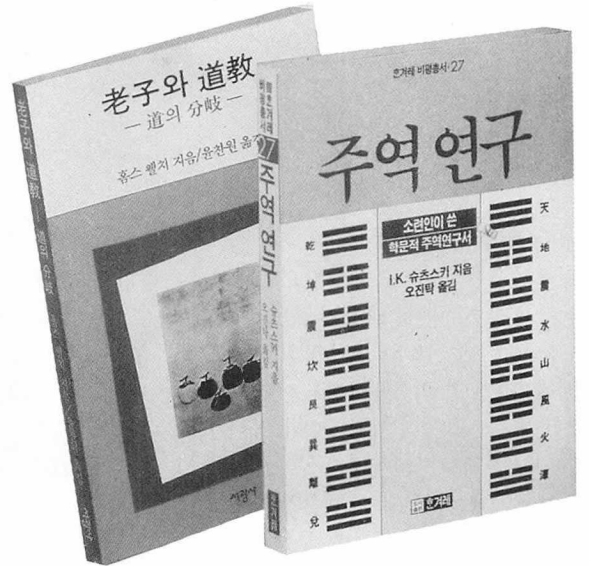
저자는 “지은이도, 연대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의미에 대해 일치를 볼 가능성도 거의 없는 책을 연구하는 것은 시간낭비가 아닐까”라고 자문하면서, ‘깊은 샘’과 같은 이 중국고전의 심원한 매력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도덕경」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영어로 번역된 이유는 그 간결함과 신약성서와의 유사성 때문이라면서 성경과 도덕경의 구절을 발췌 대비한 부분은 인상적이다.

저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노자의 逆說을 상당한 정도로 소화하고, 또 그것을 현대사회의 병폐라 할 소외문제를 치유하는데 적용시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지극한 현학자이면서 동시에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만이 「도덕경」을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이 책의 결말은 서양인의 동양정신에 대한 이해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말이라고 하겠다.

소련학자의 독창적인 「주역」 연구

「주역연구」(Researches on the I Ching)의

**동양의 고전은
더이상 동양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서양의 분석정신과
합리주의는
동양의 신비적
직관의 세계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저자 I.K. 슈츠스키는 스탈린의 폭정에 희생된 소련의 저명한 중국학자. 인간의 영혼과 그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는 20세기 초 혁명의 와중에서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굳게 지켰다. 이상주의자였던 그는 재판에 회부되기도 않고 교도소에서 친구와 함께 ‘두개골이 체인으로 으깨어진 채’ 처형되었다. 다행히 그가 37년 소련 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에 제출한 학위논문은 스탈린시대를 건디고 살아남아서 동료학자에 의해 출판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책이다.

「주역」은 고대 중국인의 우주관을 집결해 놓은 것으로서, 서양철학사가 플라톤의 각주인 것처럼 중국철학사는 「주역」의 해석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소련 동양학계의 촉망받는 소장학자였던 슈츠스키는 중국의 고대문헌, 그리고 나중에 중세문헌을 연구하면서 「易經」과 마주치게 된다. 유가경전을 연구하려 해도 도교를 연구하려 해도 중국 불교에 접근하려 해도 모든 길은 「주역」으로 통해 있는 것이다.

슈츠스키는 제1부에서 「주역」에 대한 서양의 연구가 여러가지로 부정확함을 지적하고, 제2부에서는 이 책을 둘러싼 11가지 문제를 논구하고 있다. 슈츠스키의 연구시기는 30년대이므로 지금과는 상당한 시간적 거리가 있으나 매우 독창적이며 특히 주어진 자료를 모두 섭렵한 그의 연구태도는 많은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도 더 유교를 숭배했지만 「주역」 연구에 관한한 국외의 학계에 내놓을만한 것이 없다. 단지 회고적이고 찬탄조의 서술이 대부분인데 서지학은 철학에 앞서야 한다는 점을 이 소련학자의 저술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老子와 道敎」 「주역연구」 이 두권의 책은 신비스럽게만 여겨졌던 동양고전이 더 이상 동양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준다. 동양학이 케케묵은 ‘聖人 말씀’의 수준에서 벗어나 엄밀한 學의 체계를 가진 학문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보다 최근의 서양인의 동양학 관계 저술도 많이 번역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진우 기자

별을 따려는 사람들



吳成贊
소설집

...과란만장, 전장의 보병처럼 나는 이시대에 문학의 길을 걸은 셈이다. 이제 새시대를 맞아, 누가 말한 것처럼 다시는 나와 같이 불행한 文人이 이 나라에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작품집을 재편집한다.

志成文化社 종로구 숭인2동 1423
☎ 233-5554

한국 수수께끼 사전

김성배 엮음



한국의 전통적인 고유 언어 문화 중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흥미롭고 재치 있는 대상에 수수께끼가 있다. 수수께끼의 본질은 유우머의 생활화에 있다. 어느 하나 재치와 멋과 해학과 풍자와 웃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집문당 서울 중구 신당동 251-1
☎ 252-4657, 234-2227



표지디자인 · 본문편집 · 제작

120 서울 · 서대문구 미군동 142 번지

3131-319

서울 · 종로구 경희동 110-33 (덕수B/D 102호)
☎ (代) 733-5755

眞影社

책자전문업체

電算寫植組版
SYSTEM

● 레이저프린트로 완벽한 교정
● 한자 한자에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